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 당 자	• 시민참여팀장 • 담당자	최재필 ☎440-2416 조영희 ☎440-2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

- 29일, 온라인 열린시장실 3호 공식답변 중구 제2청사 찾아 시민들께 직접 설명 -
- 유 시장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 후 지원방안 마련 할 것” 강조 -
- 향후 주민과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9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에 대해 시민들을 찾아가 직접 답변했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 명과 중구 제2청사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시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영종·인천대교가 민자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시민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 최초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긴급지시사항으로 통행량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상부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의 핵심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요금”이라며 “국토부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1호 긴급지시로 상부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추계를 지시한 것도, 조례 지원기간 연장을 넘어 취지 자체를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재접근 하는 것도 반드시 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민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무료화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 질 것을 우려한 영종지역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 30일간 3,268명의 시민 공감으로 답변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3일 제1호 안전(제2경인선 조속 추진)으로 유 시장이 서창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난 데 이어, 19일 제2호 답변(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반대)으로 이행숙 부시장이 검단 물류유통 3부지 사업현장에서 주민들께 직접 설명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 열린 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0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22. 9. 29.)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좋은 인천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3천여 분의 시민들께서 공감하신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공약 이행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뉴홍콩시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부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그런 제 의지는 이미 후보시절에 주민 여러분과 협약으로,
또 공약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으로 사업재구조화 추진은 필수적입니다.
도로는 국가 기반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014년 시장으로 출마하며 했던 1호 공약은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천발 KTX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오직 시민, 인천, 미래만 생각하며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유정복 때문에 중앙부처 문턱이 닳았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틈만 나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여러분의 바람이자 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①조례 유효기간 연장, ②할인대상에 상부도로 포함,
③국토부에 인천시 차원의 항의/궐탄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국토부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국토부 협의와 별개로, ①,②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천시 최초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긴급지시사항으로 통행량과 지원방식
등에 대한 속도감있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부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 취지를 '인천 시민(영종 및 북도면 지역 등)의 이동권 보장'
차원으로 통행료 지원 범위와 지원 방안을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의 핵심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요금입니다.
이를 위해 시행중인 '공항고속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제3연륙교('26.1.1. 개통) 통행료 지원 사항,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투트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과 뜻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1호 긴급지시로
상부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추계를 지시한 것도,
조례 지원 기간 연장을 넘어 취지 자체를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재접근하는 것도 반드시 해 내겠다는
인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여러분께서 인천과 뜻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와 소관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하나씩 풀어간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주민을 넘어선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천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